

에이스 프로젝트

(Asia Inter-change Stage)

Team. 친한 사람 얘기

유영재(경희대학교/물리학과), 010-5054-8704 kevinwoo57@hanmail.net

최호빈(상명대학교/문헌정보학과), 010-2924-3450 ghqlstm12@naver.com

1. 서론

NAFTA, EU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은 대륙으로 분류되는(북아메리카, 유럽) 나라들끼리의 집합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들은 공통된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맺고, 협정을 맺은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조금씩 힘을 모아 그 국가의 회복을 위해 도와주기로 하였다. 서로 연맹을 맺음으로써 같은 대륙간에는 전쟁이 발발할 위험도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방에 있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이러한 연맹이 없다. ASEAN 이나 ASEAN+3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긴 하지만, EU나 NAFTA처럼 대륙 내 대다수의 국가가 속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륙에 비하여 아시아의 성장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시아 역시 다른 대륙들처럼 하루 빨리 서로의 이익과 안정을 추구하는 연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에이스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2. 본론

2.1. 아시아에 대하여

우선 사전적인 아시아 대륙은 “아프리카-유라시아의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부분이다. 그 경계선은 유럽과의 경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만난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다르다넬스 해협, 마르마라 해, 보스포루스 해협, 흑해, 코카서스, 카스피 해, 우랄 강 (혹은 엠바 강), 그리고 우랄 산맥과 노바야제믈라 섬까지를 경계로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지역은 대륙과 인도양 및 태평양의 인접 군도를 포함한다.”¹ 고 정의 내리고 있다. 면적으로는 44,579,000 제곱 킬로미터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약 445배 인 것이다. 그리고 인구수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40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나라 수도 47개로서 EU가입국 보다 약 20국가나 더 많다. 인종에 있어서도 약 15개 이상의 인종이 살고 있으며, 공식어만 따져도 7-8개나 되며 방언까지 세자면 그 숫자는 900-1000 가지 정도로 늘어난다.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만 해도 15가지나 되고, 그 외에 애니미즘과 샤머니즘까지 합치자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이처럼 아시아는 아메리카나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너무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을 개척해 나가기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배경을 무시한 채 억지로 통합을 꾀한다면 결국 그 통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나쁜 결과만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 간단한 예로 들어 일본 북쪽 끝에 있는 섬 지역사람과 남쪽 끝에 자리한 섬 지역사람들은 서로를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일본보다 더 큰 러시아, 중국, 인도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거대 국가 내에서 괴리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가. 즉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알아갈 필요가 있다.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면 완벽한 통합은 이루어 질 수 없다.

2.2. 에이스 프로젝트의 메카니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에이스 프로젝트이다. 에이스 프로젝트는 그 기반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에 두고 있다. 아시아 공동체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시아 각국 전 지역에 퍼져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SNS가 생성된 후에 에이스 프로젝트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하다. 우선 일반 SNS(페이스북, 싸이월드, 웨이보, 믹시 등)들과 같이 각자의 일상적 사진과 특별한 주제가 담기지 않은 글들이 올라온다. 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가벼운 대화와 메시지가 오간다. 점점 친근감이 쌓이게 될 것이고,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궁금증이라는 단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하게 되고, 여기서 발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특별한 주제를 가진 대화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장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고, 대화의 증가에 따라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안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엔 공동체 의식이 생성되어, 차세대 리더들이 아시아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¹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C%8B%9C%EC%95%84>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출시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의 활동을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NS출시와 더불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출시도 수반되어야 한다.

2.3. 에이스 프로젝트의 장점

첫째, 사회, 문화적 교류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나라와 사회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기업인들도 아닌 현지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야말로 지식을 갖춘 현지인으로써 각 사회 혹은 문화를 전파하기에 가장 적절한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SNS에서 가장 활발히 문화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에이스 프로젝트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시차가 최대한 10시간까지 난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라면 이러한 시차를 극복할 수 있다. 직접 만나서 1대1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시아의 방대한 대륙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륙과 대륙 끝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학생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라면 물리적 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게다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사진과 동영상들을 통해 그 곳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콘텐츠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아시아 공동체 홍보와 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SNS가 활성화 된다면 이용자들은 자주 접속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집회 등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매우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상에서만 이야기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을 여러 행사를 통해 직접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기쁨은 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4. 에이스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첫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12년 서치엔진저널(Search Engine Journal) 내놓은 전국 SNS 분포표이다. 보다시피 이미 유럽과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는 FACEBOOK이 모두 점령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Cyworld도 2009년부터 FACEBOOK에게 밀려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이다. 게다가 일본 토종 SNS이던 Mixi 마저 FACEBOOK에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요즘 대세는 FACEBOOK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스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새로운 SNS를 개발한다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 희망을 보았다. 우선 아시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과는 거리가 멀던 후진국들이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어느새 인터넷을 들여오고, 접하고 우리처럼 SNS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시아에서 SNS를 이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에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발견한 희망의 빛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토종 SNS가 아닌 외국 SNS는 통과해야 할 검열도 굉장히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 중국과 러시아에 실정이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Google의 강제 퇴진, Facebook의 게시물 검열 등으로 소셜미디어 분위기가 상당히 강압적, 혹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2009년 서비스 중단)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추세이다. 즉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이 FACEBOOK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에 집중하였다. 아시아에서의 SNS를 보자면 마치 하나로 통합 될 수 없는 3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3가지 중 한가지로 SNS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국이 이미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 재단에서 SNS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첫 아시아 통합 SNS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한다.

² 중국 토종 SNS 특징과 동향, 김인숙, 2013.02,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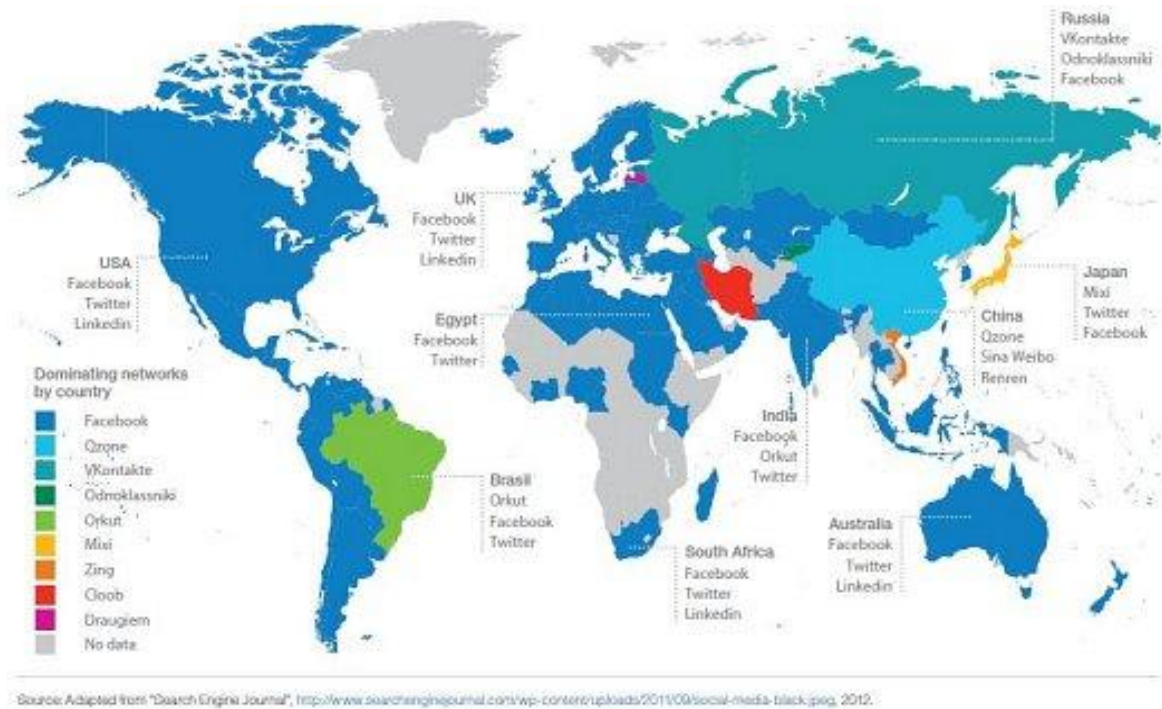


그림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세계지도 2012

둘째, 언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의 표준어 개수만 하더라도 7-8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언어를 골라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허나 이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이다. 제 3자의 언어를 쓰면 된다. 물론 그 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인도에서 표준어가 힌디어와 영어이고, 한, 중, 일, 러 네 나라의 교육과정에 모두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람은 아시아끼리의 통합인데 왜 영어를 쓰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에이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에이스 프로젝트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영어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강대국 중 한 나라의 언어를 골라서 쓰게 된다면 그 나라가 지배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SNS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등수를 공지할 생각이다. 사진, 동영상, 댓글, 게시글, 종합 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한 나라 순으로 등수를 공지하여 경쟁심을 유발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SNS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친목 도모에 적절한 페이지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메신저라던가 채팅 혹은 학생 간 모임이나 회의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 SNS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플래시 게임과 이벤트 등을 제공할 생각이다. Facebook을 비롯한 여러 SNS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 콘텐츠들이 단순한 흥미 유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할 생각이다.

넷째, 에이스 프로젝트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우선 이 대답에 있어서 나는 에이스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다시 말해주고 싶다. 에이스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빠르고 쉽게 쌓은 미래성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에이스 프로젝트의 주요 역할은 이것을 기반으로 조금씩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좀 더 견고하고, 완벽에 가까워진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갖게 될 의문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에이스 프로젝트도 물론 약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에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확신한다.

3.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2005 한국인터넷통계집”.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쇼어 마흐부바니. 2008. “헬로 아시아”. 김소희 역. 서울: 북콘서트

오강남. 2013. “세계 종교 둘러보기”. 서울: 현암사

김인숙. 2013. “중국 토종 SNS 특징과 동향”. 대림대학교. pp. 90-96

위키피디아. 10월 10일.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C%8B%9C%EC%95%84>

위키피디아. 10월 10일.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사이언스 타임즈. 10월 12일.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67690>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자료 박제훈(인천대) 교수님

이대웅(상명대) 교수님

최재현(건국대) 교수님

김민수(인천대) 교수님

신하경(숙명여대) 교수님